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 티비', '강성률 문학 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손빈과 방연(1)

비록 철학자들은 아니지만, 지난 호의 두 사람(한비자와 이사)보다 더한 경우가 중국에 있었다. 귀곡 선생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병법가 손빈과 방연의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곡 선생은 기원전 4세기 전국 시대에 살았던 정치가를 가리킨다. 제자백가 가운데 종횡가(縱橫家, 정치적 책략으로써 국제 외교상에서 활약한 유세객들)에 속한 사상가로서, 그는 소진(蘇秦, 강대국 진나라에 대적하기 위해, 나머지 6국이 연합하는 합종설을 주장)과 장의(張儀, 진나라와 6국이 각각 손을 잡게 함으로써 진나라의 발전을 꾀한, 이른바 연횡책을 주장)의 스승이었다. 중국 하남성 등봉현에 있는 골짜기 귀곡(鬼谷)에 은거했기 때문에 '귀곡자' 또는 '귀곡 선생'이라 불린 그는 이름과 성씨 및 고향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전설에 따르면, 성은 왕(王)씨고 이름은 후(詡)로, 제(齊)나라 사람이라 전해진다.

어쨌든 손빈과 방연(龐涓, ?~기원전 342년)은 그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들어 있었다. 손빈은 제나라 사람으로 지금의 산동성 양곡·견성 일대에서 걸출한 군사 전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자신도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을 과시하였고,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이 손빈이 청년 시절에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는데, 학업 성적이 늘 방연을 앞질러 그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학업을 마친 방연은 위(魏) 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위나라 혜왕(惠王)에 의해 장군에 임명되었다. 당시 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中原, 중국의 중심부)의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대로, 방연은 자신이 손빈만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천성이 탐욕스럽고 음흉한 그(방연)는 손빈을 은근히 시기하고 경원시하고 있던 터라, '제나라에서 손빈을 기용하면 어떡하나' 몹시 꺼려 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손빈을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위나라로 초빙했다.

손빈이 위나라로 오자, 이번에는 (위나라의) 혜왕이 뛰어난 손빈을 발탁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악하고 간사스러운 방연은 결국 손빈을 제나라의 첩자(스파이)로 몰아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인 빈형을 가해 앉은뱅이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빈의 얼굴에다 죄인임을 나타내는 경형(黥刑, 묵형)의 흔적까지 남겼다. 물론 방연은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철저하게 숨긴 채, 그나마 손빈에게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일을 꾸몄다.

얼마 뒤 동문수학한 방연의 지독하고 천인공노할 흉계와 그 진실을 알아차린 손빈은 이를 갈아 부쳤다. 이때부터 그는 일부러 정신병자 노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간다. 그러던 중 다시금 제나라 장군 전기(田忌)에게 구출되어 몰래 위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다. 불굴의 의지로 사지(死地)에서 벗어난 손빈은 제나라에서 자신의 일생 중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낸다. 우선 손빈은 이른바 삼사법(三駟法)을 창안해냈는데, 이것은 세 마리 말이 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교묘하게 말들을 뒤섞어 상대를 2:1로 이기게 하는 전법이다.

이러한 일들이 인연이 되어 손빈은 제나라 위왕으로부터 군사(軍師, 지혜로써 장군을 보좌하는 벼슬)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대장군 전기를 도와 두 차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손빈 병법』이라는 군사 이론서를 남겼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방연은 숙적 손빈을 죽였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완강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맡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이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음력 1월 7일)

48년생 과거의 인연들 묵은 회포를 풀어내자.60년생 모든 게 시기상조 기회를 다시 하자.72년생 어렵다 부탁에 콩 한 쪽도 나눠보자.84년생 의미가 남다른 축하를 받아보자.96년생 누구라는 이름 계급장이 달려진다.

49년생 새로운 시도에 자신감이 우선이다.61년생 잘 알고 있어도 실천으로 옮겨가자.73년생 쉽게 하는 허락 책임으로 변해진다.85년생 꼼꼼한 검증 옥에 티도 잡아내자.97년생 불평도 원망도 시간으로 지워내자.

50년생 백 점이 아니어도 숙제를 마쳐보자.62년생 맛있는 소리에 입이 즐거워진다.74년생 순서를 바꾸면 배가 산으로 간다.86년생 거칠고 험한 일이 보람을 더해준다.98년생 똑똑하고 반듯한 모습만 보여주자.

51년생 황무지 씨를 뿌려 풍년을 기대하자.63년생 장고 끝에 악수 빠름을 가져보자.75년생 희망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87년생 끈기와 인내로 반대를 넘어서자.99년생 전자가 아닌 후자 뒷걸음쳐야 한다.

52년생 마다할 이유 없는 제안을 들어보자.64년생 서운한 반응 거절임을 알아내자.76년생 나쁘거나 좋거나 처음을 지켜내자.88년생 길고도 험했던 목표가 보여진다.00년생 가르침 그대로 모범생이 되어보자.

53년생 인정 반 필요 반, 지갑을 열어보자.65년생 슬픈 사연들은 자랑으로 변해진다.77년생 명예와 출세 신분 상승 할 수 있다.89년생 생각에 그쳐있던 꿈을 만들어가자.01년생 책에 없는 내용 경험으로 알아내자.

54년생 마음에 걸려있던 빚을 청산하자.66년생 천국에 있을 법한 호사를 누려보자.78년생 용한 의사 역할 주변을 돌아보자.90년생 먼저 가는 욕심에 쉼표를 찍어내자.02년생 아름다운 감동 눈물까지 보여진다.

55년생 그렇다 하는 대답 강하게 해야 한다.67년생 물질적인 풍요 춤사위가 절로 난다.79년생 자주 하는 실수 반성문을 써보자.91년생 노동의 가치 진짜 땀을 흘려보자.03년생 맨손이었던 시작 크고 화려해진다.

56년생 다 같이 시끌벅적 잔치를 벌여보자.68년생 특별한 참고서 쓴소리를 들어보자.80년생 충분히 했던 기대 상은 덤으로 온다.92년생 예상 못한 복병 갈 길을 막아선다.04년생 귀한 가르침을 고개 숙여 받아내자.

57년생 이어달리기 하듯 꾸준히 기야 한다.69년생 간절한 바람, 하늘 문을 두드린다.81년생 마법이 따로 없는 반전에 성공한다.93년생 주는 인심 큰손 부자가 되어보자.05년생 맞다 하는 확신 자존심을 걸어보자.

58년생 약속받지 못하는 고생은 사절이다.70년생 뜨거운 열정 청춘 꽃을 피워보자.82년생 큰 이문 남기는 장사에 나서보자.94년생 야단과 타박도 칭찬으로 들어보자.06년생 멋들어진 활약 박수받아 마땅하다.

59년생 훌륭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보자.71년생 껄끄럽던 인사 금방 친구가 된다.83년생 천군만마 지원군 날개를 달아준다.95년생 지극히 겸손하고 조직에 충실하자.07년생 학생이 아니다. 선생님이 되어보자.

사 설

교육부는 문제 있는 사회복지 관련과 운영 대학들 철저히 조사하라

과거에는 대학생이 선망의 대상일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대학교 수가 적었고 1개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수도 적었다. 광주·전남에도 4년제 대학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 2개교밖에 없었다. 1년에 모집하는 학생 수도 매우 적었다. 한 과의 학생 수도 거의 2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한때는 국가에서 대학입학 자격 예비고사까지 치르기도 했다. 합격하지 못하면 4년제 대학에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대학의 홍수 시대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대학이요, 대학생들이다. 그야말로 대학과 대학생들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문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의 경우도 상당한 것 같고.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취업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어찌 보면 취업의 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대학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오늘날 일부 대학들의 경우 진리 탐구의 장도, 취업처의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결국 비싼 등록금과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학과에 맞지 않은 비전공교수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전문대학들을 비롯해 산재한 대학들의 경우 그 도가 심하다는 것이 일반론인 것 같다. 이들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모집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학생모집이 비교적 잘 되는 사회복지계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복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수없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야말로 정통적인 학습보다는 돈벌이 장사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특히 어떤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복지과는 물론 거의 모든 과에 복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모집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 걸맞는 전공 교수도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대학들의 경우 사회복지학을 정통파적으로 전공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획득한 교수는 드물다고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런 비전공 전임교수들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해서 제대로 된 학교로 정립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폐교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육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의 제도는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붙은 과를 졸업하면 모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어 있다.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획득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겠는가. 바로 사회복지사로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클라이언트들이지 않겠는가. 삶을 살다가 각종 악재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클라이언트들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이는 복지사회 구현이 아니라 복지를 역행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이 나라의 정적인 교육제도 확립과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 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